

# din & dip

## 현대의 색을 입은 전통가구

din & dip 은 design group baoo 활동하고 있는 박종호와 박준범이 만든 디자인 스튜디오이다. 서구의 가구 디자인이 조명을 받는 흐름 속에서 차별화 되는 한국 디자인가구의 경쟁력을 보여주기 위해 한국 전통 가구의 감성과 기능에 현대의 색을 입힌 2, 3인 가구를 선보이고 있

다. 한국 전통 가구의 쓰임은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의 라이프스타일과는 거리가 있지만 간결한 선과 면의 구성을 통한 단순함 속의 아름다움은 트렌디한 현대 디자인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din & dip은 단순한 전통의 답습을 벗어나 한국 전통 가구의 쓰임을 오늘 날에 맞게 재해석하

고 전통의 형태가 갖는 특징을 강조, 전통의 재료를 현대 화함으로써 변화하는 시대에 맞는 새로운 한국 스타일의 가구를 제시한다. **M**

사진 박종호, 박준범  
문의 [www.dinndip.com](http://www.dinndip.com)

**서 데스크** Seo Desk는 과거 사랑방에서 사용되던 '서안'이라는 한국 전통 책상의 쓰임과 형태에 기초하여 디자인된 책상이다. 최소한의 간결한 선으로 구성된 책상의 구조와 타공판으로 제작된 서랍은 공간의 여백을 크게 보여줌으로써 시각적인 부담을 덜어주어 좁은 실내에도 알맞다.



**론 테이블** Ron Table은 다수의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회의 테이블로 제작되었다. 여러 사람이 둘러 앉아 사용할 수 있고 테이블의 이동을 쉽게 하여 사용함에 있어 자유도를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하나의 선으로 이뤄진 간결한 구조를 통해 시원한 공간감을 느낄 수 있으며 양방향으로 개방되어지는 사람으로 인하여 보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테이블 다리에 설치된 2개의 바퀴는 테이블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공간속에서 다양한 연출을 가능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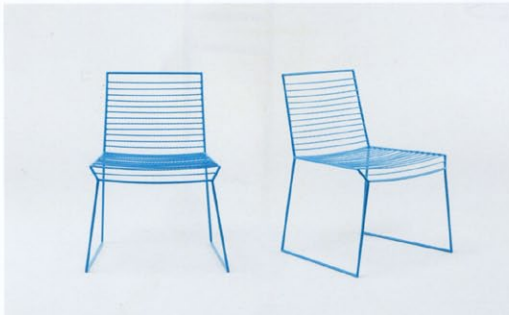
©Takumi Ota





**공 테이블** Gong Table은 간결한 선과 쾌적한 비례로 디자인되어 시각적인 안정감과 정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장식이 없고 기능을 강조하여 소박한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돋보인다. 테이블 혹은 책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며 단순한 구조를 통한 여백의미를 보여줌으로써 공간에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이브스 웨어, 스툴** Eaves Chair Stool 시리즈는 한국 전통가옥의 처마와 지붕에서 볼 수 있는 여백의 아름다움, 직선과 곡선의 조화를 배려하여 디자인되었다. 불필요한 장식과 기능을 배제하고 실용성을 극대화한 구조는 간결한 선만으로 견고하게 구성되어 있다. 디리는 안정감을 주기위해 직선으로 디자인되었으며 그 외의 구조는 전통 가옥의 처마와 기와에서 볼 수 있는 단아한 곡선으로 구성되었다. 분체도장으로 내구성이 강하며 다양한 컬러와 가벼운 무게를 갖고 있어 야외공간에서도 활용가능하다





**목 스토리지** Muk Storage는 한국 전통 장의 기능과 요소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재해석한 작업이다. 전통의 장은 이불, 의복 등의 보관을 위해 부피가 크고 주로 침실에서만 사용되었다. 우리는 2,3인 가족이 늘고 집의 규모가 작아지는 현대의 흐름에 맞춰 수납의 기능은 유지하되 규모와 비용을 축소하여 공간 효율성을 높이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취벽간'이나 '장식'과 같은 전통 장의 특징을 디자인적 요소로 활용하여 인위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여백과 비례에 의해 가구의 공간을 나누어 단아하면서 욕심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했다.

